



2026. 6. 5 (금)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금감원, 은행권 홍콩ELS 과징금 6000억원대로 감경

뉴스 <https://zrr.kr/C1Kfj6>

금감원(금융위원회)이 총 1조4000억원에 달했던 은행권의 홍콩H지수 추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6000억원대로 감경
최근 금융사들이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잇달아 패소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 과도한 과징금이 은행들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위축 우려도 반영

1530원 뚫은 원/달러 환율...은행권 자본 건전성 관리 '시험대'

동행미디어 시대 <https://zrr.kr/ho5l8s>

고환율 대응 과정에서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며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한 가운데 은행권의 자본건전성 지표도 자유롭지 않은 모습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은행권은 외화조달 비용뿐 아니라 외화자산 환산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 자본비율 관리 부담까지 동시에 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

금융위 "서민금융법 개정 시급"... 하반기 최우선 법안 추진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xnJ0Pu>

금융당국이 하반기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
서민금융법은 정책서민금융 보증상품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법안으로, 한층 중요도가 커진 포용금융 추진을 위해서는 법안 통가가 시급해졌다는 판단

KB국민은행, 4조 규모 美 FLNG 해양플랜트 사업 공동주선

뉴스 <https://zrr.kr/fU0rRB>

KB국민은행이 미국 해상에서 추진되는 첫 부유식 LNG(FLNG) 개발사업(PF)의 공동주선을 완료
총 신디케이션 규모는 약 4조원으로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공동 주선기관으로 참여, KB국민은행은 국내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대표 주선기관으로 참여해 약 2400억원 주선

다음주 '자본규제TF' 킥오프...당국, 은행 지주계 증권사 규제 손본다

MTN뉴스 <https://zrr.kr/nRhedP>

금융위원회가 다음 주 '자본규제 TF' 첫 회의를 열고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에 대한 자본 산출 방식 개편에 착수
자본 규제의 합리성을 높여 은행지주의 자금이 벤처 등 혁신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생산적 금융'의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

미래에셋, 5일부터 스페이스X 청약...전문투자자 대상

한국경제TV <https://zrr.kr/smkvln>

미래에셋증권은 5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진행
미래에셋증권은 우선 5억 달러까지 자금을 모집할 예정이며,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고 300만 달러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

"AI 보험사기는 시로 잡는다"...금융당국, 범정부 TF 출범

이데일리 <https://zrr.kr/es3AFV>

금융당국이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TF 출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연간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시를 활용한 보험금 청구 서류 위·변조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기존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

암 치료 전 보험금 먼저 받는다...생보업계 선지급 담보 확산

파이낸셜포스트 <https://zrr.kr/4n70fV>

생명보험업계에 암 치료비 선지급 담보가 확산... 이는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
암 진단 이후 실제 치료가 시작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객이 치료 예약 단계에서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 구조를 바꾸는 흐름

'코인원 3대주주' 한투증, 토근증권 선점 박차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lGqai1>

한국투자증권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자본 약 20%를 인수하고 글로벌 거래소 OKX, 컴투스홀딩스와 공동 주주 체제를 구성
각 분야 전문 기업과 동맹을 맺고 가상자산과 토근증권(STO)을 아우르는 종합 자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자체적으로 STO 발행 플랫폼 구축 또한 추진 중

美 클래티법안, 입법 막바지 스피드... '불법 금융 차단'이 막판 쟁점

블록미디어 <https://zrr.kr/kJ8mMh>

클래티법안의 상원 통과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가 법안의 '불법 금융 차단 및 집행 권한'을 부각하며 막판 총력 여론전에 나선 모습
불법자금세탁 방지 조항은 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하게 맞서온 최대 격전지로, 향후 두 달 내 상원 전체 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마지막 이권을 잡히는 것이 필수적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